조계사 새싹 불자 양성 터전 발돋움

선재어린이집 9월 2일 개원
8월 21일 운영방침 등 밝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우정숙 선재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부 집기를 살펴보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이자 한국불교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조계사가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미래 불자 양성에 한발 더 나아간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8월 21일 조계사 경내에 완공된 선재어린이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방침 등을 밝혔다.

선재어린이집 개원은 9월 2일 진행되며 이미 43명의 어린이들이 입소 준비를 마친 상태다. 기자간담회에 참여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조계사 신도회관 철거 후 다양한 신도공간의 수요가 있지만 이 공간을 조계사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어린이불자 양성의 터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됐다"며 "어린이집 아이들이 자라 조계사의 주인이 된다면 한국불교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재어린이집은 종로지역 직장인과 지역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

지현 스님은 "조계사는 그동안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며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에 앞장서 왔다. 이번 선재어린이집 개원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사 인근에는 주거단지보다 을지로와 광화문 일대 기업이 많은 만큼 직장어린이집에 준한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층부터 3층에는 연령별 보육실, 식당 및 놀이공간 등이 자리잡고 있다. 4층은 강당 및 실내놀이터, 5층은 미술실과 도서실, 음악실 등이 마련돼 있다. 이밖에 옥상은 놀이터로 꾸며졌다.

선재어린이집의 보육방침은 '마음이 고운 어린이, 꾸밈이 없는 어린이, 배려할 줄 아는 어린이'로 정규 교육과정과 함께 다도교육 등 다양한 인성교육도 진행된다.

우정숙 원장은 "선생님들의 경우 모두 5년 이상의 경력자로 채용했다. 안전을 중점으로 건강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선재어린이집은 편백나무와 참나무 원목을 활용한 책상과 집기를 비롯해 모든 부분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

안전을 위해 벽에는 쿠션을, 집기 모서리마다는 보호대를 설치했다. 또 조명마다 아이들에 맞도록 모형을 달고 조도 또한 조절했다.

인근 직장의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사와 간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앱을 설치해 CCTV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보육 시간 또한 연장반을 통해 인근 직장인들을 배려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아이들이 사찰에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고 심성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향후 유치원과 키즈카페 등도 사찰여력이 된다면 구성하고 싶다. 전국의 사찰에도 어린이집 개원을 통해 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어린이불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재어린이집은 9월 2일 입학식 후 10월 경 개원행사를 갖는다.

"동국 교훈 새기고 세상 나아가라"

동국대, 22일 가을 학위수여식 개최… 이근창 대표 명예박사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8월 22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2019년 가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090명, 석사 504명, 박사 89명 등 총 1,683 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불교 관련 박사는 16명이 배출됐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세상의 모든 꿈에 도전하기 바란다"며 "동국의 교훈과 정신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주위 사람들과 원만히 교류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이근창 한양스틸프라자(주) 대표이사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근창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금형강 기업체인 한양스틸프라자를 통해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우리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위해 환원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박사 학위가 수여됐다.

이근창 대표이사는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공업고등학교 교사, 만해사상연구소 사무국장, 신한철강주식회사 영업부장 등을 거쳐 1993년 한양스틸프라자의 전신인 한양금속을 창업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스카우트, 동화사서 지도자 연수

8월 15~17일 50여 명 참석해 전문교육 이수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연맹장 성행)은 8월 15~17일 2박3일간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불교스카우트 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불교스카우트 지도자훈련 초·중급과정의 이번 연수는 불교스카우트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의 능력 배양과 불교스카우트 조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는 불교스카우트연맹 명원 스님과 김종원 前 부산연맹장, 오규화 불교연맹 부연맹장을 비롯해 동화사 본·말사 소속 포교사와 어린이청소년법회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에서는 '불교스카우트와 화랑도'를 주제로 한 특강과 레크리에이션, 야영 강좌, 불교스카우트 활동 소개, 청년 지도법 교육 등이 진행됐다.

여택진 불교스카우트 사무처장은 "불교 스카우트 지도자 양성과 함께 더욱 많은 어린이 불자 양성을 통해 불교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원, SNS 불교콘텐츠 발행 지원

5팀 선정해 최대 100만원 지원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SNS상 불교문화콘텐츠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포교원은 8월 22일 '불교SNS채널운영 전문가 지원사업'을 공고, 8월 27일까지 프로젝트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불교SNS채널운영 전문가 지원사업은 이웃종교와 비교해 저조한 불교 뉴미디어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기한은 올해 12월까지며 SNS상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발전 가능한 콘텐츠, 혹은 크리에이터 그룹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지원금 100만원을 2차에 걸쳐 교부하며 지원자격은 불자로 불교문화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다.

서류 심의 및 당선작은 8월 30일 발표되며 당선작 OT 및 지원비 교부는 9월 초 이뤄진다. 콘텐츠 공모 세부 내역은 불교캐릭터, 일러스트, 찬불가, 사찰여행과 템플스테이, 산사음식 및 채식, 계층포교, 수행일기 미래세대 의제 등이다. (02)2011-1996 노덕현 기자

염불자원봉사단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조계종사회복지재단, 9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교육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이 제12기 염불자원봉사단 양성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에서 열리는 염불자원봉사단 양성교육은 국립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무관 스님과 우리선원 명상센터장 도영 스님의 지도로 진행된다. 염불염송과 목탁 집전, 조가연습, 상가예절 교육이 이뤄진다.

염불자원봉사단은 2009년부터 불자들의 생애 마지막 길을 법음의 향기로 가득 채워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해왔다. 교육수료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요일별로 팀을 이뤄 활동하며, 서울경기지역의 상가는 물론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서울시립승화원에서도 염불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복지재단은 "보다 많은 불자들의 삶의 마지막을 따뜻하고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02)6334-2211 윤호섭 기자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지뢰제거 캠페인

지속적 모연 전개… 어린이 지뢰피해 예방 교육도

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공생회가 캄보디아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지뢰제거 캠페인에 나선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과거 내전과 전쟁을 거치며 매설된 지뢰로 현재까지 삶을 위협받는 캄보디아 주민과 아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지구촌공생회가 캠페인을 통해 돕고자 하는 곳은 캄보디아 북서부에 위치한 지뢰매설지역 K5 벨트로 서울면적의 7배에 달한다. 최소 600~700만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경우 호기심에 지뢰를 만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전체 사상자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뢰의 위험성으로 인해 지역개발을 할 수 없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캠페인에 동참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사찰·단체는 후원계좌(농협 100026-55-003657, (사)지구촌공생회)를 통해 기부하면 된다. 아울러 '카카오 같이가치'와 '네이버 해피빈'을 이용해 동참할 수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캠페인으로 모연한 성금을 이 지역 지뢰제거와 아이들의 지뢰피해 방지 교육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사장 월주 스님은 "지뢰제거뿐만 아니라 저개발지역의 기반시설 지원 등 평화마을 복원에 많은 정성이 모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